

# 완도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 '소비 활성화 기대'

### '완도자연그대로' 농특산물 안정적 출하·가공·유통 체계 마련 총 사업비 20억 투입 복합유통센터·저온 저장고 등 시설 갖춰

전남 완도군에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가 건립됐다.

군은 지난 8일 '완도자연그대로' 농특산물 출하, 가공, 유통을 책임지는 복합공간인 완도농협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신우철 완도군수와 윤재갑 국회의원,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군의원, 사회·기관단체장, 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 보고와 감사패 전달, 테이프 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완도농협 복합유통센터'는 2021년도 군특사업으로 '농촌자원 복합 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20억(국비 10억, 군비 5억, 자부담 5억)을 들여 완도읍 죽청리 농공단지 4,241㎡ 부지에 복합유통센터, 저온 저장고, 사무동 등을 갖추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으로 농특산물 판로를 더 넓힐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면서 "군에서는 철저한 품질 관리로 더 안전하고 신선한 농특산물이 국민 식탁에 오르고 '완도자연그대로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완도농협과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미남 완도농협조합장은 "유통센터가 완도



를 대표하는 산지 유통 조직으로써 자연그대로 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 취급 확대와 저장 및 상품화 시설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완도 농특산물의 브랜드화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장흥군, '모령마을'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됐다 벽화 돌담·흙벽·우물 등 가치 인정

장흥군 안양면 모령마을이 '2023년도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됐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10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천 마을을 말한다.

친환경 인증면적 10ha 이상, 유기농 인증면적 비율 30% 이상으로 생태환경이 잘 보전되고 친환경 실천 의지가 강한 마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장흥군은 관산읍 송촌마을 및 옥촌마을, 안양면 신촌마을 및 학송마을이 유기농생태마을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안양면 모령마을은 유기농 18.4ha, 무농약 4ha 등 총 22.4ha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상태다.

특히, 전문가 평가단으로부터 마을회관 앞 벽화와 마을 돌담 및 흙벽, 그리고 우물 등의 생태환경 가치를 인정 받았다.

앞으로는 유기농생태마을 육성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 개발 및 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농업환경이 잘 보전된 마을이 계속해서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기농업 위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군민 소득향상과 관광 활성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강진군,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생활인구 유입·귀농귀촌 정주민 증가로 강진 인구 5만 명 달성 도전

강진군이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1회 강진군 인구감소대응 정책위원회'를 지난 5월 30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인구감소 대응 5개년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인

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진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남도답사 1번지, 글로리 A 강진'을 비전으로 삼고, 4개 전략, 16개 실천 과제를 도출해, 인구 소멸 위기에서 탈출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실제 인구 유입과 생활인구 확대 투트랙으로 지역소멸을 저지한다. 먼저 은퇴자와 귀농·귀촌인 등 정주민 유입을 위해 ▲신규마을 조성사업 ▲주택 신축 지원사업 ▲빈집 리모델링 지원을 추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강진 푸소 체험 운영 ▲푸케이션(푸소+위케이션) 운영 ▲병영 불금불과 축제 개최 등 관광사업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지역 연계형 사업으로 ▲강진-광주 동구와 함께하는 지역 연계 & 협력 사업 ▲지역상생 강해영(강진·해남·영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밖에 ▲구 성화대학 활용 문화융합

창업 플랫폼 구축 ▲사이버 군민 제도 운영 ▲각종 지원센터(만편한센터, 놀음센터, 어울림센터) 운영 등 모두 7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강진원 군수는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주민등록 인구는 이제 한계에 도달해, 생활권을 두고 오고 가는 생활인구 유입이 인구 증가의 해답"이라며 "강진은 푸소시즌 2를 통한 주거와 일자리 제공, 빈집 리모델링 정비 등 차별화된 정책으로 인구 5만 명 달성의 목표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 진도아리랑상품권 오늘부터 15일까지 일시 사용 중단

진도군이 발행한 진도아리랑상품권이 12일 0시부터 15일 오전 9시까지 사용이 일시 중단된다.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지류형 상품권은 구입과 환전이 불가하고, 환전은 9일부터 중단된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역상품권 chak 어플 접속이 불가해 충전, 결제, 환불, 가맹점 정산 등 모든 서비스가 중단된다.

상품권 사용 일시 중단은 한국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chak 시스템 개편 작업에 따른 것으로 전국 90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 이용이 동시에 일시 중단된다.

군은 한국조폐공사의 시스템 개편작업으로 사용자 어플과 가맹점 어플도 이분화됐던 서비스가 통합되고 상품권 충전·결제 등 서비스의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편은 그동안 불편했던 기능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상품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인 만큼 불편하더라도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 8일 황산면 옥동마을을 방문해 청년마을 '농농길'을 만들어가는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농길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이 될 (구) 옥동초등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황산 옥동마을은 인근 옥매산에서 나오는 곱돌로 만든 옥공예로 60~70년대 명성을 떨

### 명현관 해남군수 "청년으로 옥공예마을 되살리자"

#### 황산면 청년마을 '농농길' 현장방문...청년들 소통의 시간 가져

졌으나, 지금은 쇠퇴하여 소수의 장인들만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잊혀져가는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역 청년들이 '옥공예마을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지난해 말 군에 제안하면서 청년들의 새로운 바람 '농농길'이 추진되고 있다.

농농길 프로젝트는 2023년 전남청 청년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황산면 옥공예마을을 배경으로 폐교된 옥동초등학교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농두렁DJ페스티벌, 옥매광산 다크투어 등 세부사업을 유기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농농길은 옥공예마을의 상징인 '옥'을 180도 뒤집은 글자 "농"을 이용해 만든 이름으로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옥공예마을에 다채로운 그림을 그려보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다.

해남군은 후속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통해 빈집을 활용한 창업·거주공간을 조성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마을 정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과 청년을 잇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청년마을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